

## 신앙, 신앙생활, 신앙적인 삶

윤완철(카이스트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



얼마 전에 고 김인수 교수님 기념 장학회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와 조화(또는 균형)' 라고 하는 길고도 부담스런 제목으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그 패널 토의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묻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저절로는 켜가 맞지 않는 서로 다른 세 부분을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미쳤다. 그 세 질문이 가지런한 인과관계의 축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신학적이거나 무슨 사상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적 현상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좀 까다롭지만 어쩌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성도 싶다.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인가?〉 하고 누군가 물을 때에는 그것은 교리체계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그 무언가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의미를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내게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냥 주관적인 답을 각자 내라는 것도 아니다. 한 인간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마땅한가 하는 것이 질문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의 대답을 준비할 때에 무엇이 우리 마음에 오고 갈까? 아마 다음의 것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구원 또는 영생을 얻자는 것, 참 사람이 되자는 것, 마음이 행복하자는 것, 기왕이면 성공자가 되자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것,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각각의 내용을 가다듬고 우선순위나 균형을 잡고 오류를 경계해서 심층적으로 정의하고 어떤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하는 작업을 심중에 하게 될 것 같다.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평균적 또는 전형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우리는 흔히 통속적인 정의에서는 일단 벗어나고 보려고 한다. 요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이미 문제가 많다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통속적인' 신앙생활 관념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입장에 선다. 정작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흔히 '신앙생활' 과 구분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은 '교회생활' 이다. 그렇게 구분하려고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구분치 못하는 병폐가 만연했다



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대부분이 그 병폐를 인식하는데도 또 그 병폐가 만연하고 있다는 모순은 각자의 분열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 그런 통합성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더 이 문제를 거론하는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일요일에는 열심히 신자지만 나머지 6일은 '일반인'이 되는 것을 전형적 문제로 본다. 또 여기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에 빠지기만을 권장하고 있는 목회 방식을 문제 삼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 자체도 아니고 그 문제의식의 맞고 틀림도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앙생활이란 단어가 우리 마음에서 포섭하고 있는 관념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라는 원리 하에 실천적으로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신앙적 열정, 봉사, 성경공부, 공동체, 기도 생활, 선교나 사역 등으로 구성되고 표현되는 어떤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즉 마음도 행동도 포함하지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종교적 영역의 일들이다. 즉 우리 언어에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넘어선, 그러나 비기독교인은 하지 않는 부분의 종교생활로 통용된

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실천적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음이든 행동이든.

그러면 <신앙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결국 신앙생활과 '신앙적' 생활이라는 한 글자 차이가 되는데, 의외로 그 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신앙생활에서의 '생활'은 신앙의 범위 내에서 상상되는 데 비해, 신앙적 삶이라고 할 때의 '삶'은 일반인의 생활의 범위와 겹치는 부분을 암시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일반적' 삶이다. 말의 쓰임새가 그렇게 다른 것이다. 이런 일반적 삶에서는 우선 사회적 도덕이 문제가 된다. 또는 이웃의 존경과 인정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취약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실천을 문제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어느 장로님이 사회에서는 결코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하면 이를 뼈아프게 여기고 다시금 실천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신앙적 삶의 뜻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둘 사이의 관계에 필연성이 꽤 희박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골이 좋은 사람을 보면 힘이 셀 것이라 생각하고 날씬한 사람을 보면 민첩하리라고 예상하며 깊은 지식을 갖춘 학자를 보면

연구를 잘하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개 맞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온 사람이 뛰어난 신앙적 삶을 살리라는 상관관계를 그 정도로 가질 수 있을까? 근거가 약하다. 인과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도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꽤 널 토론 주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발생한다. 신앙생활이 신앙적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약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신실성이 생활의 덕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실천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보이는데, 따져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데 문제가 마개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영역에서의 신앙적 삶은 종교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의 결과도 아니요 실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무언가 잘못됐다.

신앙 • 신앙생활 • 신앙적 생활의 인과관계가 파괴된 것을 가지고 ‘아하! 저 가운데에 위치한 연결고리인 신앙생활이 왜곡되어 본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인과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또 그래서 많이들 그런 반성을 한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 교회생활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버린 지도자들이 일차적인 피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무턱대고 교회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만 신경쓰다 보니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진지하게 돌보지 못하게 되고, 개인의 실제 삶의 현장에도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가운데 고리를 교회의 관심사로 납치해 버리고 나머지는 방치한 것이다. 충분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주범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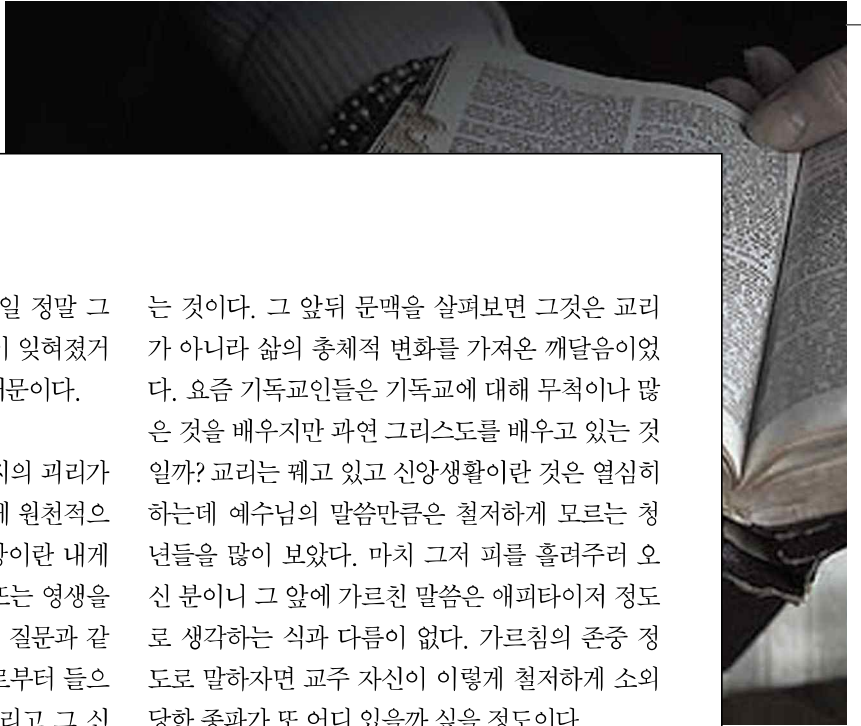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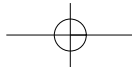
신앙과 삶의 일치를 늘 부르짖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양심세력’들도 한번 점검해 보자. 그 건강한 메시지인즉슨, 일치시키라, 실천하라 하는 것이다. “도덕을 알고 있으니 아는 바 도덕을 실천하라, 그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의무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반 도덕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것을

마땅한 의무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비기독교인 중에도 드물다. 그런데 왜 그 실천이 유독 기독교의 의무인가 하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대안을 모르겠다고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옳다고 해선 안 된다.

우리는 지금도 오래 된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 함정이란 늘 남에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부분이 아프니까 바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들이다.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보나 하고 가르치려는 격이다. 식중독으로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피부병으로 알고 연고로 치료하려는 것과도 같다. 율법적 태도, 과장된 도덕, 바리새 주의,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손쉬운 탐닉 등이 정작 실천의 부족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

너무 따지는 것 같지만, 어차피 점검하지는 것이나 따지지는 것이나 같은 말이니, 이번만 한 번 따져 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증명하려고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다고 증명하려는 노력이라면 아무리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정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선교를 위해서라면 더 딱한 일이다. 주일학교 표어에서 전도를 위해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파괴적 교육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말로 남달라야 한다. 그런데 그 원천적 차이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일반인도 알아 볼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모르는 어떤 곳에서 얻는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필연적으로 오는 통로는 어디인가? 이것이야말로 필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런 결론이 예정되어 있는 탐구였다. 왜냐하면 그런 통



로를 발견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만일 정말 그런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는 지금은 많이 잊혀졌거나 막혀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꼭지의 괴리가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괴리가 아닐까 한다. “신앙이란 내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예수께 구원 또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절실한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답을 예수께로부터 들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신앙적 삶과 인과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질문 자체가 틀린 사람을 빼고 나면, 문제는 예수님의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원래 ‘들을 귀 있는 자’를 무척 따지던 주님이시니 그게 쉽지 않은 것도 당연하긴 하다. 그러나 배움이 부족할수록 가르치는 자의 책무는 중해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왜도난마식으로 결론을 내 버릴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주제를 탐구할 필요는 있다. 배움이 없는 것이다. 약해서 실천 못하기 이전에 실천할 배움이 내면에 없는 것이다. 무슨 배움을 잃은 것일까? 무엇을 간과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넘긴 것일까? 이것이 우리를 세계관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논리의 품새도 사상의 구조도 아니고, 영성의 또 다른 말이 된다. 그것이 역시 세계관의 원 뜻이 아니던가? 우리의 의식적 사상과 행동 그 아래 있어 그것들의 경향을 결정하고 있는 암묵적 신념의 구조, 그것이 믿음 안에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관을 거론하는 이유일 것이다. 세계관의 변화에 이르는 배움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이다.

필자에게 그 잃어버린 배움에 관한 힌트를 준 한 구절은 이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엡 4:20)”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뭔가 결정적이었다

는 것이다.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온 깨달음이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배우지만 과연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일까? 교리는 껍데고 있고 신앙생활이란 것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철저히 모르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다. 마치 그저 피를 흘려주러 오신 분이니 그 앞에 가르친 말씀은 애피타이저 정도로 생각하는 식과 다름이 없다. 가르침의 존중 정도로 말하자면 교주 자신이 이렇게 철저히 소외당한 종파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

법정 스님이 별세하여 흠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가 한 진리를 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저 실천을 잘한 것일까? 아니, 그 실천된 한 진리의 깊이를 일반인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전하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안다면, 신앙이 무엇이나, 신앙생활이 무엇이나, 신앙적 삶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줄로 가지런히 연결되고,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한 글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